



‘차 없는 거리’ 연삼로 교통 혼잡 우려

27일 오전 애향운동장·연삼로 행사 구간 통제

제주도 “사전안내 강화, 교차로 부근 인력 배치”

제주도가 오는 27일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 & 걷기행사’를 개최하며 일대 교통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연삼로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 & 걷기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두 발로 두 바퀴로, 더 푸른 제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와 걷기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오전 10시에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보건소 사거리와 JIBS 제주방송, 마리나 사거리를 경유하는 왕복 5km 자전거 코스와 JIBS 제주방송에서 돌아오는 4km 걷기 코스로 구성됐다.

행사 시간 동안 애향운동장~한라명동칼국수~보건소 사거리 서측

~마리나 사거리 동측 도로는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제주도는 장소 선정에 대해 “연삼로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종합운동장과 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도민 참여가 용이하다”며 “도로 구조가 대규모 인파 안전 관리에 적합하고 자전거 및 걷기 코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행량이 많은 연삼로 구간 도로통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삼로 구간은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발생할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통제될 시에는 서광로나 연복로로 우회해야 한다. 서광로는 BRT개편 이후 차선이 줄어들어 교통 체증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며 연복로의 경우에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연삼로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두 구간으로 빠진다

면 일대 교통 체증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행사일인 27일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열리는 날로 오일장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 혼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제 구간은 공항과 멀리 않은 곳으로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터카들의 통행량도 적지 않아 행사 당일 도로통제를 알지 못한 관광객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연삼로 인근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행사와 도로 통제에 대해 알릴 예정이며 오일장 상인회와 대화를 나누며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차로 부근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렌터카 내비게이션에 통제구간을 안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막은 제주동부경찰서 형사 8팀 소속 서보성 경장(아래 오른쪽) 김연희 순경(아래 왼쪽)과 형사들.

양유리기자

“만기 앞둔 예금 해지”…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찰

은행, 목돈 현금 인출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검사 사칭 조직 지시 따라 5000만원 현금 인출
경찰, 자택까지 찾아가 끈질긴 설득 피해 예방

정부가 최근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제주에서 경찰이 시민의 자택까지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50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막은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한 은행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은행에서는 50대 후반 A씨가 만기일을 1~2달 앞둔 5000만원 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인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직원이 캐묻자 A씨는 “딸이 두 달 뒤 결혼해서 전세자금으

로 보태려고 한다”며 은행원을 제촉했다.

자녀의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목돈을 인출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실제로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은행원은 일단 현금을 인출해 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부경찰서 소속 서보성 경장과 김연희 순경은 즉시 해당 은행을 방문했으나 A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A씨의 자택을 찾아가 보이스피싱 유형과 사례를 설명한 뒤,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설득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돼 재산 검수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다음날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조직원과 약속을 잡았으나 경찰의 설득 끝에 보이스피싱 사례임을 인지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돈을 요구하고, 수사기관과의 통화까지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금융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원격 조종 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인테리어 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심정지 병원 이송

제주의 한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쓰러졌다.

소방은 A씨에게 CPR(심폐소생술)과 전기 충격을 시도하고 심정지 처치 약물 등을 투여했다. 하지만 A씨는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은 A씨가 근무 중 심정지 증세를 보여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통보조치했으나 개인 질병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물놀이 사망사고 6건 중 3건 ‘스노클링’

도, 28일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올해 여름 물놀이 관련 사망사고 6건 중 3건이 스노클링 활동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7월 25일 괄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8월 20일 구좌읍 김녕리 세기알포구, 8월 31일 성산일출봉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한 달여 사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 유영구역 이탈 등으로 분석됐다.

스노클링은 조류, 파도, 수심, 체력 소모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초보자

자는 물론 숙련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지난 1일 해양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놀이 및 스노클링 이용객에게 구명조끼 필수 착용 권고, 2인 1조 활동 원칙 준수, 장비 사전 점검 철저, 기상 상황 확인 후 입수,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다발 지역에 안내 게시판과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8일(최대)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 40곳에 안전관리요원 156명을 연장 배치한다. 해수욕장 12곳에 66명, 하천 9곳에 38명, 연안 지역 19곳에 52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고산 9월 일평균기온·일최저기온 극값 경신

28.7℃·27.1℃… 지난해 세운 3·4위 기록 갈아치워

지난 1일 기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의 9월 일평균기온과 일최저기온이 28.7℃와 27.1℃를 보이며 종전 3위, 4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산지 제외)에는 폭염특보, 제주산지와 제주남부에는 호

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며 덥고 습한 수증기를 포함한 남풍이 유입됐다.

특히 비구름을 동반했음에도 고산지역은 강수현상 없이 낮 동안 특보, 제주산지와 제주남부에는 호

지 않아 최저기온은 27.1℃(오전 7시)를 기록하며 9월 일평균기온 3위와 일최저기온은 극값 4위를 경신했다. 종전 값은 지난해 9월 16일 일평균기온 28.7℃, 일최저기온 26.3℃이다.

제주에는 3일 오전(6~9시)부터 늦은 오후(3~6시) 사이, 4일에는 오후(경오~6시)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일별로 5~40mm가량이다.

백규탁기자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춘을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비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천혜향

황금향

한라봉엠

남진해

성전온주생

하레조생

탐라봉

윈터프린스

감평

진지향

탱자묘

2~3년생

3~5년생

3~5년생

3~6년생

3~4년생

3년생

3년생

3년생

3년생

3년생

3년생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맏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제품 분양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콤미, 맏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레조생, 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궁천, 고림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